

여는 시 | 제봉 고경명 夢仙蒼松 - 「면양정 삼십영」 중에서

인사말 | 이병호 담양문화원 원장

코로나 일상 속 지방문화원의 역할 1

축사

담양의 연관문화를 담아내는 담양학 연구발전 산실로 최형식 | 담양군수 3

예향 담양의 무궁한 발전과 건투를 바라며 김정오 | 담양군의회의장 4

문화와 예술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기를 이개호 | 국회의원 5

담양문화원 사업 이모저모 편집부 8

담양문화원 동정 편집부 15

특집 | 설화로 보는 호남의 의향정신

설화로 보는 의향담양 심진숙 18

설화로 보는 광주정신- 김덕령 장군 설화를 중심으로 이나라 72

설화로 보는 문림의향(文林義鄉) 장흥 위중만 100

천년담양 역사문화인물 | 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

못다 이룬 비운(否運)의 대기 - 고하 송진우 송진한 137



발행일 2021년 12월 28일 발행인 이병호 편집주간 장은설 발행처 담양문화원 www.dyculture.kr

주소 57365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35 전화 061-383-6066 팩스 0303-3443-6066 디자인 심미안(062-651-6968)

본지에 실린 내용과 사진을 사용하시려면 『문화담양』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담양』은 담양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담양문학

이야기 시

대나무공방 이야기 구정순
천원상회 텔레비전 김남례
다리걸 석유집 김도선
지계 이야기 김복동
맷돌의 추억 김용운
뚝방이야기 박정권
화전 막걸리 이삼덕
세상에서 제일 맛난 쌀밥 장옥자
정미소 이야기 최용채
심지 갈아요 김가행
막걸리 생각 김대규
우시장거리 김문주
병문거리 이야기 김용근
우시장 주막 박일채
다리걸 이야기 여양섭
지계 이양순
처갓집 씨암탉 최광를
샘 이야기 최태순

설화동화 용이 되어 승천한 버들 봉어 김미승
손수레에 실은 꿈 안오일

소설 남자로 살기 박태정

추억의 관방천

문화원 가족을 모십니다

편집후기

153

206

207

208



로 사라진 요강바우 이야기를 하면서는 너무 안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무분별한 개발과 공사로 설화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었다. 옛 이야기 쯤이야 뭐 대수라고 당장 돈이 되면 됐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생각하니 설화는 당대의 개발성장주의와 맞서고 있었다. 어느 마을에서는 간척으로 사라진 갯벌을 복원해야 한다고, 어느 마을에서는 도로공사로 마을 혈맥이 잘려 기운이 쇠했다고 말했다. 특히 장흥은 ‘아껴둔 땅’이라고, 이제 환경과 문화의 시대라서 잘 보존된 생태환경이 돈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한 입으로 아직 훼손되지 않은 장흥의 산과 들, 강과 바다를 보러 온다고 말하고 있다.

길게 오래, 살가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흥을 생각한다. 임진왜란 의병장 문위세에서 항일독립운동가 김재계까지 의향장흥의 이야기를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로... 저 장평, 장동에서 남쪽 회진, 대덕까지 마을 곳곳 잠들어있던 이야기들을 들었다. 『문림의향 장흥설화』 이야기들은 상상력의 원천자료로 그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또한 눈 밝은 여러 장르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 소재나 모티브로 활용되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생활이 곧 문학이었던 선조들의 삶 속에 오늘날 우리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고 이 정체성이야말로 가장 장흥다운 개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천년담양의 역사문화인물 | 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

못다 이룬 비운(否運)의 대기

— 고하 송진우

송진한 | 전남대 명예교수



고하가 태어난 안채. 21년도 올 해 어엿 날개를 최근에 없어서 초가의 모습을 함초롬하게 담고 있다.



1. 1890년의 ‘범내려 온다’

지난 세기 1890년 현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손곡(巽谷)마을에 범띠의 한 인물이 태어났다. 그는 호를 고하(古下)라 하였고, 본명은 송진우(宋鎭禹, 1890~1945)였다. 고하는 손곡마을 초가집에서 바라보이는 ‘고비산(古飛山)의 아래’라는 뜻으로 전해진다. 고비산은 같은 군 동일한 면의 봉황리에 있는 산으로 비봉산(飛鳳山)으로도 불려진

* 주요 아래 문헌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사진 이미지를 붙였다.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고하 송진우선생』, 팸플릿, 2021. 동 기념사업회에서 펴낸 고하 선생 관련 책과 학술세미나집 참조. 광복회, 『2021 이달의 독립운동가 생애와 공적』, 2021. 박명수, 『건국투쟁』, 백년동안, 2015. 문체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 『12월 문화인물 송진우』, 1997. 등을 우선 참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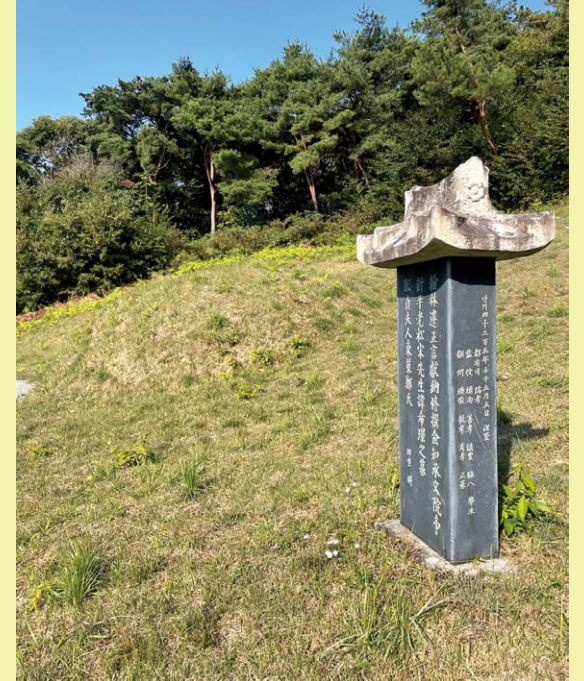


다. 마을 주변에서는 어려운 처지와 지경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곳곳하게 이어나가는 기상과 상징을 나타낸다고 본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개념이나 추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범이나 대나무가 활용된다. 범은 우리들에게 범은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공경의 대상이기도 한다. 속담에 그에 관련 이야기들이 전한다. 사례로 ‘범을 잡으려면 그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은 큰 뜻을 품고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범은 평소에 발톱을 감춘다’는 보통 때에 지략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며 꿈을 키울 때 사용한다. 이런 가치나 의미는 범띠 해에 태어난 고하의 행적이나 성과와 유사해 주목된다. 심지어 현 이날치 밴드가 부른 ‘범내려 온다’라는 판소리 풍의 노랫말은 더욱 의미심장하

다. 그 가사에 범이 내려와 너른 숲과 깊은 골에 아주 큰 범이 내려와 ‘범 가는 데 바람 가는 것’처럼 재빠르면서 조화롭게 다른 짐승을 어르고 달래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 그 범의 태도나 행동이 고하의 활동이나 지향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하의 향리에는 대나무 밭이 무성하게 펼쳐져 있다. 대나무는 맑고 지조와 절개가 굳으며, 줄기는 꼳꼳하고 둥글며 속이 비어 있어, 마음을 비우고 하늘의 도를 전할 인물을 기호화하는 것으로 의미화 된다. 보이지 않는 땅 속 줄기는 옆으로 뻗어 마디에서 뿌리와 순을 틔우고 자연 번식한다. 이런 성질과 그 상징은 큰 인물이 본받을 품성과 기질을 가진 것으로 규정된다. 대나무의 재질은 항상 푸르며 젊고 왕성한 기상을 가져 대쪽 같이 쪼개지는 성격의 선구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는 불의나 부정과는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사람을 말한다. 고래로 중국의 소동파(蘇東坡)는 고기 없이 살 수는 있지만 대나무 없는 생활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일상의 생활 용품에 대나무가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 정도로 대나무는 우리들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대나무의 상징들이 고하의 행적이나 삶의 자취에 잘 투영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노송당 송희경의 묘와 비

한편, 고하의 가계는 대략 노송당(老松堂) 송희경(宋希璟, 1376~1446)부터 이야기된다. 그는 신평(新平) 송씨 노송공파의 시조에 해당되는데, 조선 초기 세종 때에 일본에 당당하게 맞서면서 회례사(回禮使)로 외교 업적을 쌓았다. 그 통신사 외교 활동을 다녀 온 후 『노송당일본행록(老松堂日本行錄)』을 펴냈고, 은퇴 후 담양에 기거하게 된다. 그는 한양에서 맛보았던 음식 중의 하나인



제월봉 가는 길

떡갈비를 담양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그 떡갈비는 원조가 되어 전국적으로 담양군의 대표적 먹거리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추가해서 한 인물을 들어보자. 조선 중기의 면앙정(晩仰亭) 송순(宋純, 1493~1583)을 들 수 있다. 종종 때 대부분의 관직 생활을 한 그는 담양 제월봉(霽月峰) 아래 면양정을 세워 여러 인사와 교유하면서 하나의 가단을 형성했다. 주요 작품으

로는 「면양정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가사문학 갈래의 선구자로서 중세 강호가도의 집대성을 이뤘다. 그는 자연 예찬을 노래하면서 도가적인 속성도 넣어 읊으며 음률에도 밝아 매우 호기로운 풍류 활동을 즐겼다고 한다. 좀 더 설명해 보면, 그는 일상의 바쁜 삶 중에도 인간의 본성을 잊지 않도록 강호를 즐겨 누리는 작품 활동을 했다. 또한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근심을 하면서도 호방한 기상을 펼쳐 초탈한 예능 활동을 지향했다. 그리하여 마음이 한가로워 현명하지 못한 잘못된 망념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러한 가계의 열과 혼을 이어받은 한 인물이 태어난다. 앞에서 잠깐 말한 바와 같이 그는 범의 기상과 태생지의 기운을 금가지 태몽을 통해 구현한다. 고하는 어렸을 때 금가지로 불리며 그의 일대기의 전개를 기대케 했다. 1890년 고종 때였다. 주지하다시피, 그 당시의 시대는 조선조 말의 매우 혼란하고 복잡한 시기였다. 이런 점들은 오히려 고하의 재능을 단련케 하고 더욱 가멸찬 각오를 다지게 했다. 그는 정주화된 비범성을 갖고 닦아 힘써 나아갔지만, 시대는 그를 얹어매고 가두었다. 이에 고하는 시대정신을 새롭게 하며 굳고 힘차게 멈춤 없이 버티며 나아갔다.

2. 시대의 시련 속에

고하는 ‘들고 쓰라’는 모토 속에 시대의 아픔과 소명을 풀어나갔다. 현재에는 ‘보고 찍자’로 시대를 대변하지만, 고하는 시대의 이념과 가치를 문필 작업과 사회 활동으로 당대의 삶과 목표를 그려내었다. 그는 일제 강점기의 강압과 폭거에 글로 말로 행동으로 항거와 투지를 불살랐던 것이다. 이를 구체화보면, 항일독립운동과 민주건국 지도자 역할과 구실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출생의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도 길러졌다. 그는 한학을 수학하면서 한말 호남 의병장인 기삼연(奇參衍, 1851~1908) 대장의 훈도를 가슴 깊이 새겼다. 주로 민족의식의 고양과 항일의 깃대종으로 삶의 목표를 삼았던 것이다. 이어서 창평(昌平)의 영학숙(英學塾)과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서 더욱 시대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글과 글씨 그리고 독립운동의 생활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고하는 일본 유학 후 귀국해서 교육자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소임을 다한다. 중앙학교에서 맡은 바 직책을 다하면서 학교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한다. 그는 교무 업무와 학교의 책임자로서 직분을 다하면서 서양사를 가르치는 역할도 한다. 그러면서



손곡마을 고하기념관 내의 영정

그는 민족을 위해 맡은 바 소명을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실천하여 전심을 다할 것을 결심한다. 우선 우리 민족의 세 영웅을 기리는 삼성사(三聖祠) 건립 운동을 펼친다. 단군과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을 기린 이 사당을 서울 남산(南山)에 건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총독부는 신사(神社)를 세워 이를 방해하고 다른 장소의 건립도 끝내 좌절시킨다.



관어공원 내의 고하 송진우 추모비

이들 세 인물은 고하의 스승 역할과 영웅의 소임으로서 내면화된다. 그들은 정신적 지주로서 고하의 안내자이며 지도자로서 구축된다.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서 고난 극복의 상징으로 내면화되어 당대 시대의 표상으로 자리매김을 시킨다. 고하는 직접 이 세 영웅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스승으로서 자신에게 내면화되어 스스로에게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생활의 기준과 준거가 된다. 이미

태생 때부터 그 자신에게 내포되어 있던 범이라는 의식과 상징의 틀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세 영웅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다.

고하는 곧이어 3·1운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다. 그는 중앙학교 숙직실과 손병희(孫秉熙) 고택 등을 중심으로 김성수(金性洙) 등과 독립운동을 도모한다. 국외에서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 국내에 암암리에 전파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민족 지도자들은 앞으로 닥칠 검거와 탄압에 대비하여 진영을 나눠 대책을 강구했다. 그중 고하는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33인에는 들어가지 않고 나중을 대응하기 위한 예비적 팀의 청년 지도자로 배정되었다. 이는 3·1운동의 원대한 목표와 비전을 위한 실천적이고 전반적인 전략이었다. 결국 고하는 체포와 고문을 당하고 구금과 신문 끝에 1년 7개월 만에 풀려난다.

고하는 체포와 구금 생활 중에 내면화된 정신적 스승의 가르침을 새기며 그 난관을 헤쳐 나갔다. 그 가르침은 고하에게 독립 운동에 대한 동기나 영감을 주었다. 주변의 민족 지도자나 사상을 교유했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고하에게 행위의 준칙으로 독립 운동을 삶의 원형으로 고양시키고자 했다. 일제 부역자들의 유

혹을 뿌리치며 ‘범은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구차하게 살지언정 부정한 것을 탐하지 않고 그 고단한 독립운동의 생활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또 다른 원형은 범의 상징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범은 평소에 발톱을 감춘다’라는 속담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는 마음이나 사상으로 독립에 대한 소명을 갖추었지만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후일을 도모하는 진정한 전략가적 기질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는 중국의 사마의(司馬懿)가 인내를 통해서 전략적 마인드를 구현한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사마의는 중국 삼국시대 위(魏)의 정치가이자 전략가로 서진(西晉) 건국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그는 조조(曹操)가 일을 맡기려 하자 칭병하면서 사양을 한다. 또한 제갈량과 싸울 때도 그는 나가 싸우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했다. 나중에 조상(曹爽)과 권력 다툼이 일어나자 치밀한 계산을 해 병을 핑계로 일선에서 물러나는 수법을 쓰면서 때를 기다렸지만 결국 권력을 쟁취하는 인물이었다. 천하를 멀리 내다보고 나라를 경영한 인물로서 이러한 때를 기다리는 부분들이 고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고하는 생활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고 살아갔다. 언론 활동은 그것을 구현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고하기념관 내의 저술 활동 자료 전시

그는 동아일보에서 여러 직책을 맡으며 그 활동을 통해 계몽과 주장을 널리 알리고 설명하였다.

이 무렵 하와이에서 범태평양민족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태평양 연안의 각 민족 대표들이 모여 실제적인 현안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고하는 조선의 선각자 서재필(徐載弼, 1864~1951)과 이승만(이승만(李承晩, 1875~1965) 등을 만나 교유하고 귀국한다. 차후에 그는 지금까지 구축된 식견과 주의를 논설을 통해 발표한다. 그는 글에서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동포 심리라고 갈파한다. ‘용 가는 데 구름 가고 범 가는 데 바람 간다’거나 또는 ‘구름 따라 용이 가고 바람 따라 구름 간다’처럼 둘이 같이 다녀서 서로 떠나지 아니할 경우를 동포에 비유한



금성면 대곡리 손오실 송진우 기념관

다. 모든 시대 현상과 동포 생활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봤던 것이다. 한편 모스크바 국제농민회본부에서 조선농민에게 보낸 3·1운동 기념사를 신문에 게재한다. 이에 다시 수감되고 동아일보는 정간을 당한다.

추가로, 고하는 동포에 대한 심리를 인식으로 심화시켜 문화 계몽 운동으로 전개 발전시킨다.

이는 사상의 심화와 확대가 결부된 행위였다. 예컨대,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조선은 아시아의 빛나는 등불'이라는 시를 기고하게 만들었던 것이나, 미국의 주간지 네이션의 주필이 보내온 축하문을 게재하였던 점들은 다시 정간을 당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는 「조선의 노래」 가사를 제정하여 작곡을 하게 만들어 제2의 애국가가 되게 한 경우



고하기념관 내의 3·1운동 발원지 비문

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고하는 동포를 깨우쳐 일제 강점기 시대의 권위와 제도 그리고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이성을 바탕으로 동포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서부터 두었다. 아산(牙山)에 현충사를 건립하고, 행주산성을 중건하며, 브 나로드 운동을 펴간 것도 이 일환이었다. 중국에서 만보산(萬寶山)

사건이 발생하자 한·중 이간책임을 간파하고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였다. 단군행적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기도 했으며 어문 정책은 조선어학회의 맞춤법을 채택하여 동포들의 한글 소통과 능력을 도모하였다. 이런 과정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에 일장기 말소 사건이 터진다. 손기정(孫基禎, 1912~2002) 선수가 마라톤



보훈처 등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달력

에서 우승을 하자, 고하는 가슴에 단 일장기를 삭제할 것을 관련 기자들에게 지시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무기 정간의 제재가 뒤따르고 결국 폐간을 당하고 말자 고하는 은둔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대 끝에서도 삼년[간두과삼년(竿頭過三年)]’이라는 속담 같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좀 더 참고 견디기 위해 은거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고하는 태평양 전쟁 전후에는 칭병하면서 창씨개명과 일제와의 협력을 거부하다가 45년 광복을 맞이한다. 그 직전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정권인수를 제의받았으나 거절한다. 여운형(呂運亨,

1886~1947)으로부터는 건국준비위원회 참여를 요청받고 일축한다. 이에 대해 고하는 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임시정부 범통론을 주장한다. 그 무렵 한국민주당이 창당되자 당수격인 수석총무에 추대된다. 이렇게 고하는 해방 직후 그 정국을 이끌면서 민주국가 건설에 매진한다. 그해 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신탁통치 찬반을 놓고 그 안을 면밀히 보고 찬반을 결정하자고 고하는 신중한 반탁을 주장한다. 이에 선달 30일 새벽에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 역사상 첫 정치적 암살의 희생자가 되고 만다. 이는 정치의 발전과는 무관한 돌연변이의 산물이었다. 나라의 변혁과 건국 개화(開花)를 주장한 자의 병적인 조치였다. 그 암살을 대나무에 비유해 보자. 대나무는 좀처럼 개화되지 않지만 필 경우에는 전체 대밭에서 일제히 핀다. 온 대나무 밭에서 일제히 꽃이 핀 후 모두 고사한다. 나라라는 밭에서 그 밭이 전부 고사한 것 같은 그의 죽음은 한국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의 연고와 도움이 필요함을 알게 해 주는 암살이었다.

실상, 찬반탁 논쟁의 출발은 오보에서부터 시작했다. 12월 27일자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는 타이틀로 보도를 했다. 미군정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송진우(宋鎭禹, 1890년 6월 11일~1945년 12월 30일)는 독립운동가, 정치인이며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에 언론인, 교육자, 사상가, 정치인으로 활동하였다. 본관은 신평이며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손곡리 출신이다. 아호는 고하(古下)이다.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의 초대 당수였으며, 1919년 3·1 만세 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의 한사람이기도 하다.

이에 즉각적으로 민족주의 애국운동 진영은 반탁을 주장한다. 이후 이 운동을 주도하던 우파의 반탁은 곧 소련을 반대하는 운동이며, 반공운동이 되었다. 반면 3상 결정을 찬성하는 좌파는 신탁통치를 원하는 소련의 비밀지령을 받았다고 찬탁 진영이라고 규정되었다. 요약컨대, 남북분단은 좌파 우파가 아닌 찬반탁 분열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런 논란의 소용돌이 중에 고하는 암살을 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경우를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밀정〉, 〈암살〉이라는 영화로 상영되었다. 1980년 이후 찬반탁 논쟁은 그 진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동아일보의 오보를 밝히

는 일에서부터 출발했다. 3상 결정안은 곧 신탁통치안이 아니었다. 전체 4항 중 3항에 신탁통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1항과 2항은 미군과 소련군이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신탁통치안도 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인들이 구성한 단체 사이의 협의를 통해 구체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미국이 주장한 신탁통치안은 3항에만 있었고, 1항과 2항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소련의 주장이 수용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3상 회의 결정은 해방이 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이를 요약하자면, 민족주의



12월의 문화인물 송진우 18~19쪽에 실린 타고르의 시와 「조선의 노래」

애국운동 측과 일본 제국주의 측에 편승한 세력과의 대립 구도가 그 3상 결정으로 좌우익 간의 대립으로 재편된 것이었다. 3상 회의 결정의 본질은 유럽 문제가 급한 미와 소가 신탁이든 독립이든 한국에서 빨리 발을 빼야 한다는 것으로 그들의 우선적 관심은 한국이 아니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에게 합리적 선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이었다.

3. 2022년 범의 귀환을 바라며

고하의 일대기는 독립운동가, 언론인, 교육자, 사상가, 정치인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동아일보에 실린 일부 찬반탁 내용 복사해서 고하기념관에 전시

그의 업적이나 목표에 드러난 시대정신과 활동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아마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의 근대 개혁 정치인이자 사상가로 자국의 혁신을 모색한 Kang Youwei(康有爲)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넘어 선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청 말기 및 중화민국 초의 인물로 무술변법(戊戌變法)이라 불리는 개혁의 기치를 내걸은 지도자였다. 사숙을 열고 량치차오(梁啓超) 등을 교육했으며 중국 각지에 개혁 조직을 두고 법을 바꿔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변법자강(變法自彊)으로 개혁을 시도했다. 후자는 일본의 계몽가이자 교육자이다. 에도(江戸:도쿄)에 네덜란드 어학교인 난학숙(蘭學塾)을 열어 운영하였고, 이는 현 게이오대학(慶應大學)의 전신이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후 정부의 임명을 거절하고 교육과 언론활동에만 전념하였다. 실학을 장려하고 부국강병을 주장하며 자본주의 발달의 사상적 근거와 외국 식민 침략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들이 자국에 내세운 방안과 목표의 수행은 고하의 지향과 실행의 방법에 유사한 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하의 활동과 실적에는 이들이 자국에 행한 방안과 목표의 수행을 넘어 선 훨씬 더 개혁적인 흔적과 정신이 보인다.

고하의 태도와 심리 그리고 생태적 환경이 그의 시대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기국(器局)이 크고 성격이 호방하며 담대했다고 전한다. 그러면서도 어떤 정책을 결정할 시에 그는 팔짱을 끼고 넓은 입을 꼭 다물고 앉아 ‘안 돼’라고 한 번 하면 어느 누가와도 권고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 고집불통의 태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의 성격이나 심리도 그의 생태적 환경 속에 배양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 진다. 생애사에 그 현상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는 범의 해에 태어났고, 대나무 밭이 무성한 곳에서, 가계의 얼을 이어받으며, 수학하고 유학을 다녀오며, 항일 독립 투쟁 속에 시련을 겪다가, 죽음을 당하고 만다. 이런 일생에 그 생태적 배양이 드러났던 것이다. 이는 대기(大器)가



정인보가 지은 비문

미완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취만 남긴 채 드라마틱하게 생을 마감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1893~1950)는 이러 고하를 기리는 비문과 시조를 남긴다. 그는 ‘아침의 말로 근본을 세우고, 저녁의 말로 행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막았도다. 웃고 떠들어도 한계를 넘지 않고, 취해 소리쳐도 그대로 있었다-(중략)-팔을 걷고 분해 일어나면, 산과 바다도 떨었



석재 서병오가 짓고 쓴 글

도다. 깊은 마음 속에 맺힌 것이 아니었다면 어찌 처음부터 끝까지 이처럼 끈을 수 있으랴’ 이런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범이나 대나무의 생태적 환경 속에 태어나 삶의 방안 등으로 단련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정인보는 ‘숙초(宿草) 밑에 누운 고우(故右) 송고하(宋古下)를 우노라’라는 시조를 남겨 고하의 모양새를 파악하게 한다.

위당은 세한도(歲寒圖)와 관련되어 말해지는 추

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와 제자인 우선(藕船) 이상직(李尙迪, 1804~1865)과의 교류 그리고 소동파가 그의 아들을 위해 그림과 글씨를 주었다는 고사를 생각하고 고하를 기리는 비문과 시조 작품을 남긴 것 같다. 서울 도봉구 창동역사 문화공원에는 일제강점기 때 창동에 거주했던 창동3사자(송진우, 정인보, 김병로) 동상을 조성해 놓은 일화에서도 고하와 위당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선조 고종 때 영남 제일의 서예가인 석재(石齋) 서병오(徐丙五, 1862~1935)가 고하의 모습을 묘사한 글에서도 그의 자세와 됃됨이가 어떠했는가 알 수 있다.

고하의 내력에 대한 역사를 부연해 보면, 그는 한학을 배우고, 영학숙을 다니며,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다. 그는 신학문도 배웠지만, 한문 고전에 대한 지식도 남 못지않게 축적되어 있었다. 또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해석과 자리매김을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여겼다. 단군, 세종대왕, 권율, 이순신 등 여러 선대 영웅들을 기리고 성스럽게 했다. 이러한 영웅의 일대기를 한학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가슴에 새기도록 했다. 이런 활동 속에 고하 자신의 행위와 비전이 드러났다. 그는 영웅들의 현창사업 활동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 그는 영웅들을 정신적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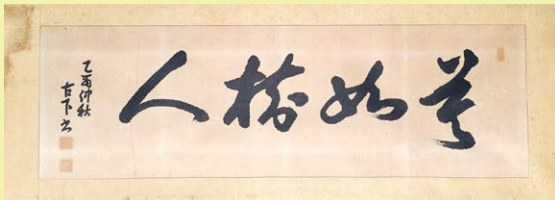
승으로 해석하면서 예우한다. 이는 한학을 배웠던 탓도 있었지만, 시대적 소명 의식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다.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27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길을 잘 가는 사람은 자취를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흠이 없으며, 셈을 잘하는 사람은 산가지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은 스승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는데 흠이 없으며, 셈을 잘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은 아래처럼 기술된다.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나 바탕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지혜롭다 해도 크게 미혹된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이는 스승에 대한 근본과 지혜를 기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하는 우리의 현창 영웅들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이 그 삶의 방식과 태도에 접근한다. 그는 태생지의 생태적 환경과 성장 배경을 바탕으로 스승으로서의 활동을 삶의 모토로 삼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 생활의 여정은 일제 강점기 시대적 질곡의 소용돌이 심연 속에 몰입했던 것이다. 그 속에서 시대의 정신적 스승으로서 앞장서서 활동하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 방안의 하나로 후일을 기다리고 참으며 치밀하게 상황을 대처해서 3·1운동, 일장기 말소 사건, 신중한 반탁 운동을



고하 송진우 선생 시비(담양공고 앞)



고하가 쓴 '막여수인(莫如樹人)' 글(박흥도 사진 제공)

행했던 것이다. 한 예로, 고하는 인재 기르는 활동을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벌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후진을 기르는 것을 평생의 사업으로 여겼던 경우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는 관자(管子)에 나오는 ‘사람이 평생 가져야 할 계획은 사람을 기르는 것만 한 것이 없다’라는 고사 성어를 쓴 액자 글씨에도 이 뜻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은 고하가 1945년 추석 무렵에 마지막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스승으로서의 인재 양성 활동을 얼마나 중하게 여겼는가 알 수 있는 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하의 생애와 암살은 조선조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김덕령(金德齡)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다.

후자는 아기장수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데, 그는 비범한 능력을 가졌으나 시련을 겪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옥사한다. 이런 생애 여정이 고하와 유사성이 있어 비유된다. 또한 고하의 태생지인 담양과 인근 지역인 광주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한 김덕령은 그 활동 지역과 대상에 있어 친연성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담양 금성면 출신 박동실(朴東實, 1897~1968) 명창의 판소리 중에서 전해지는 ‘열사가’의 인물과 그 내용은 고하의 항일독립투쟁의 활동과 비슷한 궤적을 같이 해 주목된다. 물론 고하와 향리가 같다는 측면도 있어 고하가 즐겨 판소리를 불렀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애사를 대비해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 할 것이다. 비록 고하가 판소리를 즐겨 했다는 구문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2022년은 범의 해이다. 고하의 출생 연도의 띠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모든 액운이 물러나고 1890년 ‘범내려 온다’라면서 내려왔던 고하의 기운이 이제는 ‘범 탄 장수’처럼 굳고 힘차게 솟구치기를 기원해 본다.

야담문학

이야기 시	구정순	대나무공방 이야기		여양섭	다리걸 이야기
	김가행	심지 갈아요		이삼덕	화전 막걸리
	김남례	천원상회 텔레비전		이양순	지계
	김대규	막걸리 생각		장옥자	세상에서 제일 맛난 찰밥
	김도선	다리걸 석유집		최광률	처갓집 씨암탉
	김문주	우시장거리		최용채	정미소 이야기
	김복동	지계 이야기		최태순	쌈 이야기
	김용근	병문거리 이야기	설화동화	김미승	용이 되어 승천한 버들 봉어
	김용운	맷돌의 추억		안오일	손수레에 실은 꿈
	박일채	우시장 주막	소설	박태정	남자로 살기
	박정권	뚝방 이야기			